



JCI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17 0708

Vol. 124

Smart Choice Best Care

# 인하대병원

특집\_암통합지원센터 Health Touch\_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Today INHA\_임원의학과 INHA Focus\_병문안 개선 프로젝트 인하심표\_우즈벡 의료봉사



# 고운 사람으로

고운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잘 난 것도 없지만

언제나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모든 꽃들이 다  
봄에 피는 것이 아니듯

여름에 피어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꽃!

또 가을에 피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꽃!

겨울이 다 지난줄 알고  
눈 얼음 뚫고 나온 복수초도  
우리를 감동케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일 년 내내 피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당신의 웃음꽃이 제일 곱습니다.



유미설 | '내 곁에 너를 붙잡다' 중에서 | 신영미디어



04



20



32

# 인하대병원

Jul  
+

Aug 2017 Vol.124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인하대병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건강 한 걸음

04	<b>  특집  </b>	<b>암통합지원센터</b>
05	Hello Doctor	최선근 교수 / 암통합지원센터장
08	암코디네이터	1_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싶은...
10		2_ 당신의 고통을 함께 버텨내는, 암코디네이터 5인
11	암환자 영양관리	치료 부작용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영양
12	5대암 검진	'암'을 알고 이겨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14	Health Touch	정신건강 지키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18	Today INHA	환자 중심의 통합진료 '입원의학과' 신설

## 사랑 두 걸음

20	어디까지 가봤니	인천 골목이 품은 이야기 14 - 송월동
24	Special People	조선3대 명주 감홍로 빛는 이기숙 명인
26	INHA Post	100세까지 옴로(YOLO)가 건강한 옴로(YOLO)!!

## 나눔 세 걸음

28	Change the INHA	"환자안전 Up ↑ 환자위해 Down ↓"
30	INHA Focus	병문안 개선 프로젝트
32	인하심포	뜨거운 사랑에 핀 봉사의 꽃
34	톡톡 약물상담	다한증 치료제와 사용법
35	병원 탐방	청라백세요양병원 김주용 원장

## INHA NEWS

36	병원소식	인하대병원 소식
39	Info Desk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건강교실, 공개강좌



표지\_ 암통합지원센터 의료진

# 암 환자의 '삶'은 더 멋진 길이어야 한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누구라도 어쩔지 몰라 고민한다.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을 버텨내야만 한다.

지우고 싶은 현실이다. 그러나 암통합지원센터 의료진은 멈추지 않고 꼭 잡은 당신의 손에서 꿈을 찾는다. 그렇게 오늘 '하루' 열심히 채우다 보면 멋진 '내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암 환자의 삶은 더 멋진 길이어야 한다.

기획\_김옥주 차장/홍보팀 진행·정리\_이정희 에디터 사진\_송인혁 실장/다뷰스튜디오



## 안고살아가는 병 '암', 삶의 질 위한 센터로 가족처럼 함께 걱정해주는 '공감'은가장큰 치료

우리 몸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덩어리 '암'은 우리에게 두렵고 여전히 정복이 불가능한 분야이다. 인하대병원 암 환자화 그의 가족들까지 아우르며 공감해주고 내 가족처럼 소소한 일상까지 의논할 수 있는 '암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의료인이 아닌 보호자 입장에서 누구보다 절박한 심정을 겪었던 암통합지원센터장 최선근 교수(대장항문외과)를 만나본다.

글\_ 이정희 에디터

Profile\_ 최선근 교수(외과)는 1991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인하대학교 일반외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대한대장항문학회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며 인하대학교 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장 및 직장암의 국소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분석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세부전공분야는 대장암(결장암, 직장암, 항문암), 복강경 대장절제술이다.



### 20년 전, 위암 진단 받은 아버지 때 센터 절실함 느껴

최선근 센터장은 아버지의 위암 진단으로 모든 게 상실되었고 자신이 전공이었던 20여 년 전의 기억을 더듬는다. 다학제 진료라는 말조차 없었을 당시, 이과 저과, 검사실까지 절절한 암 환자의 보호자 심정으로 다녀할 뿐이었다.

“그때 전문의를 만난 후 제가 무엇이 되어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모교 병원에 교수로 봉직하게 된다면 암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소소한 것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부서의 절실함을 느꼈어요. 과거에는 환자가 여러 과를 다녀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었죠. 그런 차원에서 빅5가 아닌 우리 병원에서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인간적’ 인거라 생각해요.”

원스톱, 쉽게 말해 여러 개 진료과 검사에서 중복되는 것은 걸러내고, 환자와 보호자의 심정을 이해해주면서 의사와의 소통까지 아우르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암통합지원센터이다.

### 가족처럼 함께 아파하고 걱정해주는 ‘공감’은 가장 큰 치료

암 환자 진료는 진단부터 시작해서 수술 후 항암치료 그리고 일상

1 인하의대 1회 졸업생인 최 교수는 제자이기도 한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은 각별하다(2015년 의전원 졸업여행 중). 2 외과 의사 그가 수술장에서 더 빛나는 이유, 바로 ‘호흡 척척’ 맞는 스태프가 있기 때문이다.



속에서 재활치료까지 다학제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과거 초기 암 환자의 대응은 ‘생존’에 집중하다보니 삶의 질을 고려한 정신적, 심적인 면은 신경 쓰지 못했다.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앞둔 작년 10월 무렵 TFT팀을 시작하였다. “말씀드렸지만 저희 병원이 빅5 병원이 아니다 보니 보통은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최종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는데 서울은 보통 한두 달씩 밀려있더라도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간다는 거죠. 우리 병원이 암 환자가 적은 병원은 아닙니다. 암코디네이터 활동이 시작되면서 20% 후반이었던 환자 이탈률이 2~3달 만에 10%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가족처럼 함께 아파하고 걱정해주면서 세심한 부분을 충분히 메워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진단, 치료과정, 수술이후 궁극한 점, 영양사 조언은 물론 자신에게 적절한 암 정보를 끌어 모아 토털 케어를 표방한다.

### 저는 조울자일 뿐입니다

암 환자는 타과와의 협진이 많은 질환 중 하나이다.

내 환자도 밀려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 오는 타과 환자를 급하게 봐야 하는 상황에 대한 조울, 공감대가 필요한 협진에서 대인관계 좋은 최 교수의 능력(?)은 심분 발휘된다.

“제가 좀 스무드립니다(하하). 의사와의 조울, 병원 내 암 환자가 가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제가 가서 부탁하고 조정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실제로 항암치료 중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당장 해결해야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피부과 치료가 급한 상황이죠. 우리 병원 피부과는 환자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피부과 과장님께 의논드리는 거죠. 의사인 제가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얘기하면 피드백해줄 수 있고, 필요한 교수랑 연결이 되는 그런 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첫 외래 후, 최소한 5일 내 수술 가능하게 하다!

한정된 날짜에만 하던 수술을 1주일 내내 수술하고, 진수가 늘은 것을 보면 분명 암 코디네이터의 활약이라고 최 교수는 말한다.

1시간이 아까운 절절함을 잘 알고 있는 최 교수는 우리 의료진이 조금 더 부지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영상의학, 병리검사 등 외래 첫날 할 수 있는 검사는 다하기에 도전해 보았다. 꼬박 1주일 걸렸던 검사와 진단이 툇나뉘어처럼 착착 돌아가는 조화가 이뤄졌고 최소 5일 내 수술까지 가능해졌다.



“한 번 내원한 환자가 먼 거리까지 다니며 아픈 몸에 절절한 마음으로 치료받는 것을 막고 싶은 것이다. 이건 지역내 대학병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싶은 그의 사명감이기도 하다.”

### 전화 한 통화로 교수와 연결, 환자의 상황 조정하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수술 사흘 전 동생이 돌아가신 거예요. 본인은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어요.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해서 사정 얘기를 하고 근무시간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소소한 거 같지만 환자에게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지요. 전화 한통화로 대학병원 교수에게 연락이 되고 피드백 되어 다음 주로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소한 마음 하나하나를 지나치지 않고 배려해주고 들어주는 코디네이터의 따뜻함이 아픈 환자의 가슴을 녹여내는 듯싶다. 보다 직접적인 현장에서 활동하는 코디네이터 간호사를 위한 최 교수의 쓰담 노하우는 ‘ㅇㅇ야!~’라고 허물없이 부르는 거라고 한다. 센터 내 가장 나이가 많다는 최 교수다. 그래서 공적인 장소가 아니면 오빠처럼(?) 친화력을 높이고 이해하고 싶기 때문이란단.

### 암은 이제 만성질환 개념, 삶의 질 존재를 위한 센터로

암은 여전히 사망원인 1위이지만 죽는 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행하는 만성질환’ 개념이 되었다. 설령, 말기 암 환자여서 희망이 없다 해도, 오늘 힘들게 버텨낸 그들 ‘하루’의 소중함을 잘 안다. 완치 후 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심리적 위축까지 온전히 끌어안는 코디네이션을 생각하는 최 교수다.

### 특별히, 인하대 의대를 통해 외과의사로 살아간다는 것

매일 수술장에서 메스를 들고 살아가는 최선근 교수는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충분히 만족스럽다. 새벽 2,3시 응급실에서 교수 의료진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는 긴박한 상황과 분위기가 자신에게 잘 어울린다고(?) 표현한다.

바쁜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낸 것, 새벽 수술을 하고 나오면 뺨갠게 끼는 인천항 안개까지, 몸은 고단해도 보람찬 희열이 느껴진다.

맹장 수술 어시스트로 들어간 학생시절, 마지막 한 땀을 떠보라했는데 넣었다 뺐다하며 15분 정도 덩치에 맞지않게 땀 흘렸던 당시, 절대로 외과의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던 그다.

“오기도 좀 있었던 거 같고 치료 반응이 빠른 외과가 저는 좋았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늘이 스킨을 뚫고 지나가는 한땀의 느낌이 나쁘지 않았고요. 바느질은 와이프가 안하고 제가 다 할 정도로 잘 합니다(웃음).”

### 학교 축제를 찾는 몇 안 되는 노땅(?) 중의 한명

누군가의 아들로, 형과 동생으로, 내 미누라의 남편으로 두 아들을 만난 것, 그리고 의사가 된 것, 특별히 인하대 의대를 통해서 외과 의사로 살아온 것을 잘한 몇 가지라고 꼽는 최 교수다.

그는 남은 삶 동안 서너 가지만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데 그건, 병원과 인하대 의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란다. 자신이 의사로 성장하기까지 평생 속해 있는 인하대 의대에 대한 자부심은 우리 졸업생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가치이고 그게 잘되면 병원도 우리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다.

지금도 인하대 의대 1회 졸업생으로 학교 축제를 찾는 몇 안 되는 노땅(?) 중의 한명이다.

내가 가르쳤던 아이가 교수가 되고 또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내가 아프면 찾아가고, 제자이기 보다 선후배가 연결되는 느낌, ‘그게 참 좋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정 많은 최 교수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암 환자의 가장 큰 치료라고 최선근 교수는 생각한다.

그런 나이고, 그런 너였으면 좋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익숙함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매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깊은 마음으로 암과 동행하는 이들과의 인연을 꿈꾼다.

#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싶은 우리 코디네이터에게는 암 환자의 밝고 씩씩한 모습, 값을 따질 수 없는 큰 선물

암코디네이터는 하루 종일 암 환자를 만나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고 묻기도 한다.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함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가족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가슴 쓰리게 아픈 일을 겪을 때도 있다.  
그렇지만 치료가 어려운 병, 무서운 병으로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환자들에게 인하대병원의  
암코디네이터로서 희망이 되고, 열심히 치료받도록 하는 격려자로 되는 순간  
“나는 간호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글\_ 김민경 암코디네이터 / 암통합지원센터



“수술 후 2일째 되는 날 병동을 방문하여 다시 한번 환자를 만났다.  
회복기간 중 여러 가지 배액관을 가지고 있고, 통증도 심했을 때인데 병실을 찾아간  
나를 보며 반갑게 맞이해주는 모습에 뿌듯하고 그저 감사한 마음이 가득 하였다.”

### 내가 왜 암인지 이해할 수 없는 환자의 마음

진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환자가 홀로 암통합지원센터  
를 방문하였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국민 대상 검진을 받지 않으면 건  
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줄 알고 검사를 했다가 암이라고 진단을 받  
게 되었다. 30년 전, 홀로되어 자식이 있어도 자식과의 인연을 끊고  
온갖 험한 일 하며 살아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는데, “왜 내가 암  
이냐”며 인정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한다.

정신이 혼미하여 뭐가 뭔지 모르겠고,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  
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소리 없이 흐느끼면서 큰 눈물만  
뚝뚝 흘러고 있는 환자를 대하는 마음은 한없이 아프기만 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아픈 마음을 뒤로 하고 조금은 담담해진 환  
자에게 조심스럽게 가족관계, 기왕력, 보험 유무, 경제적인 여건 등  
에 대하여 사전 조사 후 현재 환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치료계획  
수립, 과정, 경제적 지원 부분에 대한 대책 등을 설명하였다. 환자  
는 한번 두번 만남이 들어갈수록, 방문 초기와는 다르게 편안한 마  
음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달라는 적극적인 자  
세를 보여주었다.

### 환자 치료를 위한 빠른 검사와 협진,

### 그리고 빠른 수술까지 원스톱으로

이 환자를 위하여 치료에 필요한 빠른 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fast  
track system 가동, 특수 내시경 및 수술 일정 관리, 검사결과 확인  
후 타과 협진 의뢰 관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암 환자 치료비 지원프로그램 적용 등 암코디네이터로서  
다각적 접근을 통해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빠른 수술적 치료  
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술 후 2일째 되는 날 병동을 방문하여 다시 한번 환자를 만났다.  
회복기간 중 여러 가지 배액관을 가지고 있고, 통증도 심했을 때인  
데 병실을 찾아간 나를 보며 반갑게 맞이해주는 모습에 뿌듯하고  
그저 감사한 마음이 가득 하였다.”

막막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혼자 있는 기분이었는데 용기와 희망



을 주어 덕분에 수술을 잘 받았으며, 수술 후 열심히 하라고 미리  
교육했던 운동을 잘하고 있다며, 오히려 칭찬해 달라고 하는 모습  
에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다.

수술 후 5일째 되던 날 모든 것이 원활히 회복되어 퇴원 전, 대장암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배변의 습관, 변화되어야 할 일상생활 교  
육, 또한 대장 수술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식사요법, 정상 식사로  
의 이행 등 전문 영양사와 한 팀이 되어 교육을 제공하였다.

또한, 수술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항암치  
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사전 준비와 2차 암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 검  
진의 중요성도 함께 전달하였다.

### 입원간호팀과 공유, 수술 후 필요한 교육과 정보제공

암 환자의 외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입원간호팀과 정보를 공유하  
고, 또 입원간호팀에서는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환  
자에게 수술 후에도 필요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가정에서  
스스로 돌 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암코디네이터의 몫  
이라고 생각한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또 다른 암 환자를 위해 일하고 있던  
어느 날, ‘김영란법 때문에 사람 노릇도 못하게 하네’라며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는 환자분은 처음 만나러 왔을 때와 사뭇 다른 편안  
하고 밝은 모습으로 2차 항암 치료 받기 위해 입원하는 길에 들렀  
다며 잘 지내고 잘 치료받고 있다고, 수술한 의사 선생님도 잘 지내



# 암 치료는 체력이 중요, 체중 감소하면 치료 어려워 치료 부작용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영양

암통합지원센터에서는 암 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양관리의 전문적 상담도 가능하다. 환자를 직접 만나서 식습관을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영양판정 및 영양 상담을 진행하며, 대장암과 유방암 등 암 관련 질환 집단 영양교육과 공개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글\_ 홍기연 영양사 / 암통합지원센터

암 환자의 일상생활 중 주의해야 하는 식습관 및 권장사항, 치료 중 나타날 수 있는 식이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입원 생활 시 식사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합니다. 임상영양사로서 영양 부분의 지식적인 것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이 실제 생활하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어려웠던 점을 함께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영양사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반찬을 3~4가지 골고루 먹습니다. 또한, 매 끼니마다 고기나, 생선, 달걀, 두부, 콩 등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반찬을 1~2가지 섭취합니다. 채소 반찬은 매 끼니 2가지 이상 충분히 먹는데 씹거나 삼키기 힘든 경우에는 다지거나 갈아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유 및 유제품은 하루 1컵 정도 마시고 한 가지 이상의 과일을 하루 1~2번 간식으로 활용하여 섭취합니다. 양념이나 조미료는 너무 짜거나 자극적이지 않게 조리하도록 하고 물은 하루 6~8컵 정도 충분히 마십니다.

록 합니다. 식욕부진으로 식사 섭취량이 적은 경우는 부족한 섭취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루 3회 식사 외에 좋아하는 간식을 자주 섭취하도록 합니다. 식품을 선택할 때,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판매되는 보조식품들과 한 가지 식품만을 장기적으로 먹는 민간요법들은 오히려 치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 인하대병원 항암치료식 안내+ 식단 (간식포함) 예시

- 아침(편안한 식사): 보리밥과 구수한 누룽지 제공, 환자식/ 선택식 가능
- 점심(풍성한 식사): 항암식단 메뉴 활용, 볶음고추장과 생과일 제공
- 저녁(건강한 식사): 석식/ 선택식 가능, 유제품 제공
- 간식: 10시, 15시 제공



### 영양관리 원칙은 부작용 최소화하는 것

암 환자의 영양관리 원칙은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통해 신체적 회복을 돕고 치료과정 중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섭취하고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특정 식품이나 영양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체중감소 없도록

#### 고열량·고단백 식사 유지해야

또한 암 치료 부작용으로 인하여 체중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열량, 고단백 식사를 유지하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는지 안부까지 묻고 가셨다. 항암치료로 인해 힘들었을 텐데도 밝고 씩씩하게 헤쳐가는 모습이야 말로 나한테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따질 수 없는 큰 선물을 주신 것 같다.

### 최선을 다해도 가슴 쓰리게 아픈 일을 겪지만, 희망을 주고 싶은

암코디네이터는 하루 종일 암 환자를 만나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고 묻기도 한다.

때로는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함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가족을 떠나 보내야만 하는 가슴 쓰리게 아픈 일을 겪을 때도 있다.

그렇지만 ‘암’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치료가 어려운 병, 무서운 병

으로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환자들에게 인하대병원의 암코디네이터로서 희망이 되고, 열심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려자가 되는 순간 ‘내가 정말 간호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갖게된다.

간호사로서 삶의 원동력은 이렇듯 나를 통해 암환자들이 인하대병원의 가족이 되어 고통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더 없는 감사함과 행복을 느낀다.

매일 아침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병원에 도착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제가 만났던 모든 환자와 특히 오늘 만날 암 환자에게 저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과 평화를 느끼게 하소서~

간호를 수행할 것이다. 또 나를 만나는 암 환자 모두가 편안하고 안락한 우리 집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 고통을 나누는 인간적인 간호사의 꿈\_ 폐암 코디네이터 김영희

친절과 신뢰감을 기본으로 함께 공감하고 스스로 치료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의 상실감에 힘을 주고 싶다. 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인간적인 간호사로 기억되고 싶다.

### 따뜻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_ 유방갑상선암 코디네이터 한미숙

많은 여성환자들을 만나면서 나의 삶도 되돌아보고 같은 여성으로서, 여러 역할을 감내하는 여성으로서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나 또한 성장하는 자리인 것 같다. 나의 조언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 줄 때 보람을 느낀다. 유방암 3기 초로 진단받고 아침침저녁으로 찾아오셔서 “저 살 수 있어요?”라며 눈물 보인던 환자분이 건강해져서 5년이 지났다.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전 정말 치료를 포기했을 거예요.”라며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가시는 환자분을 보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힘들어하고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 따뜻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하대병원을 찾은, 또 나를 만나는 모두를 위해 오늘도 기도한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 안부를 궁금해하는 가족처럼\_ 간·담도·췌장암 코디네이터 민수현

나의 꿈은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교사였다. 그러던 나의 꿈은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뇌종양 수술과 투병 생활을 지켜보면서 간호사로 바뀌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많은 환자와 가족을 만나고 있는 현재의 나의 꿈은 암환자와 가족들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어루만지고, 힘든 시기를 서로 공감하고, 같은 느낌으로 소통하는 그래서 서로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가족 같은 간호사이다. 그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 삶을 함께하며 작은 힘이라도\_ 혈액·비뇨기과·두경부암 코디네이터 전선영

어떤 일을 하건 결과가 좋을 때 보람을 더 느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암 치료에 있어 결과가 항상 좋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암 환자들에게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삶 일부로 녹아들어 미약하나마 힘이 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여정을 되돌아 보고 삶에 대한 감사와 또 다른 시작의 의미도 생각하며, 환자와 가족의 지지자가 되도록 한결음씩 발전하는 암코디네이터가 되려 한다.

## ‘토닥토닥’ 당신의 고통을 함께 버텨내는, 암코디네이터 5인



사진 왼쪽 왼쪽부터 김영희, 민수현, 한미숙 / 전선영, 김민경

암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걱정과 수많은 궁금증이 생긴다. 어떤 치료를 받는지,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의 몸 상태는 어떻게 변하는지, 재발의 위험성은 얼마나 되는지, 수술비용, 치료비용은 또 얼마나 드는지 등등 궁금한 것은 너무 많다. 인하대병원 암통합지원센터에는 이런 환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5명의 암코디네이터 간호사가 있다.

### 안락한 우리 집이라고 느끼도록\_ 위·대장암 코디네이터 김민경

나는 식도, 위, 대장, 직장 등 위장관계 암 코디네이터, 소화기계 환자간호 20년차다. 소화기암 환자 간호에 있어 더욱 전문적인 간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 내가 습득한 전문지식과 암 환자 케어 스킬로 인하대병원을 찾는 암 환자를 위해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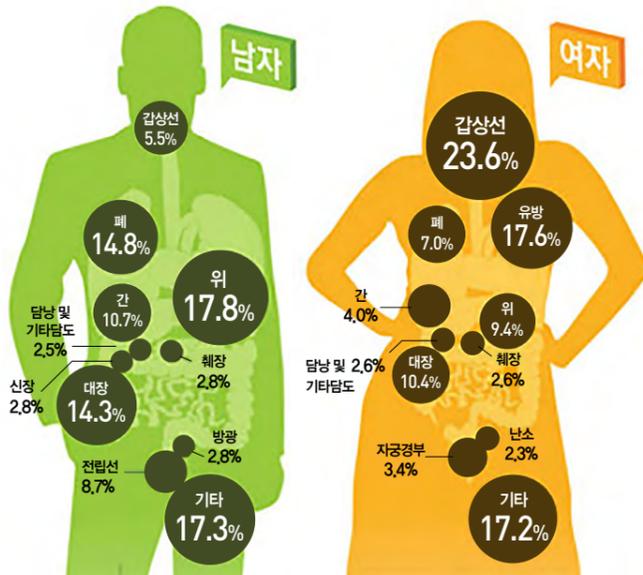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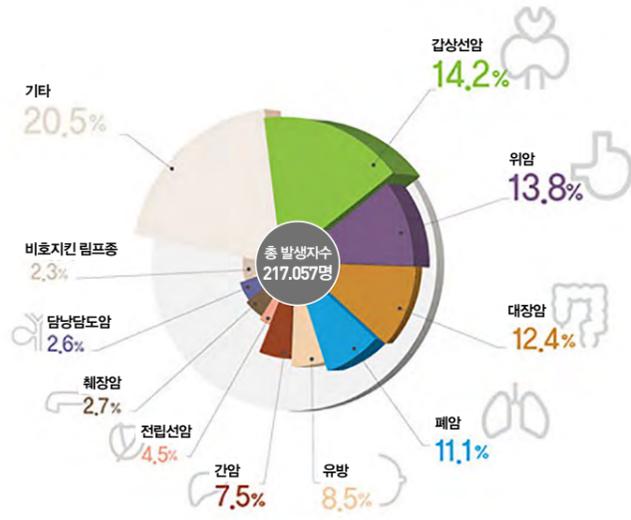


## ‘암을 알고 이겨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무료 ‘국가암검진’부터

글\_ 전선영 / 암통합지원센터 암코디네이터

주요 암종 발생분율(2014)

성별 주요 암종 발생분율(2014)



### 우리 국민의 사망 원인 1위 ‘암’

보건복지부는 국가 암 중앙등록 데이터베이스(Korea Central Cancer Registry)와 통계청의 사망자료를 분석하여 매년 한국의 암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암 환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한 해 동안 총 217,057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였고,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서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이었다.

암은 1983년 이후 우리 국민들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27.9%였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순이었다.

### 의료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 발생, 증가 예상

암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암 발생 및 사망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립암센터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암 발생자 수가 지금보다 46% 증가되고 암 사망자 수는 30%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였으며, 남자(79세)는 5명 중 2명(38.7%), 여자(85세)는 3명

### 암발생률

✓ 2014년 암 발생자 수(단위: 명)



중 1명(33.1%)에서 암이 발생하여 사실상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볼 수 있다.

### 조기 발견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암 검진 무료, ‘국가 암 검진사업’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암 발생인구의 약 1/3은 암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암으로 인한 사망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기 진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기 검진은 외견상 보기에 건강해 보이나 질병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빠르게 선별하는 검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인지되고 있지 못한 질병의 상태를 잠정적으로 밝혀내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완치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암 사망의 30%는 흡연으로 인해, 30%는 식이 요인에 의해, 18%는 만성감염에 기인한다고 한다. 그밖에 직업, 유전, 음주, 생식요인 및 호르몬, 방사선, 환경오염 등의 요인도 각각 1~5%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암 예방 생활습관 실천과 조기 검진만으로도 암 질환의 상당 부분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암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국가 암 검진과 암 예방 생활습관 실천!! 바로 지금 시작해 보자.

### 국가 암 조기 검진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이 하위 50% 이하인 분
- ※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에 해당하실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특정 암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부담금 20%를 지불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암종, 검진대상, 검진방법, 검진주기

<p><b>  위암  </b></p> <p>만40세 이상 남녀 (2년마다)</p> <p>위장조영촬영술 또는 위내시경검사</p>	<p><b>  간암  </b></p> <p>만40세 이상 남녀 고위험군(6개월마다)</p> <p>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p>	
<p><b>  대장암  </b></p> <p>만50세 이상 남녀 (1년마다)</p> <p>분변잠혈반응검사 결과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이종조영바륨검사</p>	<p><b>  유방암  </b></p> <p>만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p> <p>유방촬영술(양측) + 유방 임상진찰 권장</p>	<p><b>  자궁경부암  </b></p> <p>만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p> <p>자궁경부세포검사</p>

### 암을 예방하는 10가지 생활 수칙 |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4. 암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인프라 확충 기회 인천시민의 정신건강 지키는 최전선에서 큰 역할 할 터!

인하대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지난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이제 몇 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라는 우리 병원의 위상에 걸맞게 자살시도자들의 생물·심리·사회적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다학제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자살시도의 재발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_ 김지현 교수 / 정신건강의학과

생명사랑위기대응팀은 본인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지원체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2주마다 열리는 원내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중례토의에 참석하는 등 다학제적 대응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등록된 사례관리 대상자들은 의료기관 중심의 치료서비스를 받으시도록 안내와 지원을 받을 뿐 아니라, 각 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어 지역사회정신의학체계에 등록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정신 사회적 치료와 함께, 우울 등 정신 행동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가 제공되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환자가 처한 자살유발 환경에 대한 위기개입, 예방적 차원에서의 위험요인 관리,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이루어지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유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와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우울증 여부 확인, 치료 지원해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자살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살자의 90% 정도가 정신질환의 병력을 갖고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과 자살은 대뇌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의 세로토닌(serotonin) 기능 저하라는 신경생물학적 기전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시도자 지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울증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울증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생물·심리·사회학적(bio-psycho-social) 요인이 복합되어 유발되는 것이므로, 환자가 처한 환경이나 사회적 요인까지 모두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은 치료를 통해

호전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사회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응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울증 치료는 크게 생물학적 치료(biological therapy)와 정신치료(psychotherapy)로 구성됩니다. 전통적인 생물학적 치료방법은 약물치료를 들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약물치료는 주로 도파민(dopamine), 세로토닌(serotonin),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등 이른바 단가아민계 신경전달물질(neurotransmitter)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왼쪽 전두엽을 자기장으로 직접 자극하여 정서조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방법인 반복 경두개자극술(repeated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rTMS)을 약물치료에 병행하여 치료 효율을 높이는 데에 활용합니다.

정신치료의 경우, 정신분석치료(psychoanalytic psychotherapy) 또는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로 분류되는 다양한 학파의 치료 방식이 있으며, 치료자에 따라 선호하는 학파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환자와 대화하며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막중한 책임, 인천시민의 정신건강 최전선에 서다

정신의학적 치료는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지원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결합할 때 극대화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7년 5월 30일에 발효된 정신건강 복지법(기존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와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과 어설픈 법조문으로 인한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부족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인프라를 확충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환의 시기에 우리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우리 센터가 향후에는 우리 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인천시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닥토닥 괜찮아요.”  
위로로 만드는  
새로운 시작

2015년 기준 27.4명으로 인천광역시의 자살률은 6개 광역시 중 2위로 높은 수준이어서 참으로 씁쓸하다. 우리 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극단적 결단을 하게 되는 원인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재시도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의 상황을 대변하며 인천광역시와 협력해 나아가고 있다. 위기 상황에 있는 환자가 토닥토닥 따뜻한 위로를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글\_ 장가희·박주영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사회복지사

**우리나라 자살률 현황**

우리나라 자살률은 매년 증가하여 2011년 인구 10만명 당 31.7명으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였다. 다음해 2012년에는 28.1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 28.5명

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어 2014년 27.3명, 2015년 26.5명으로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을 10년 넘게 놓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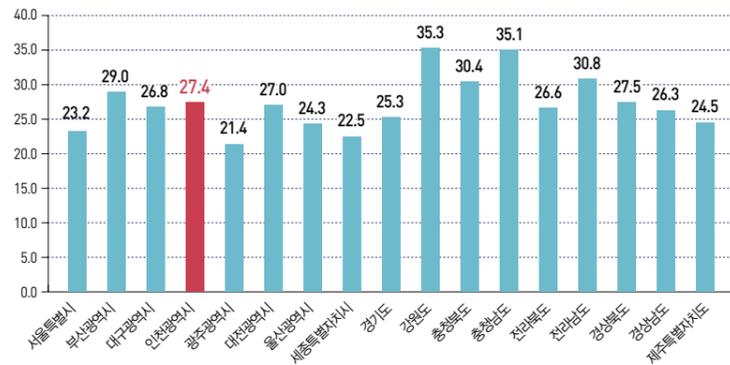
통계청에 따르면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수는 연간 4만 명 정도로 집계된다. 그 중 약 8,000명은 자살 재시도자로 분류되며 그 비율은 약 20%로 높은 편이다. 자살 재시도자의 사망률은 일반 인구가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기관인 응급실을 기반으로 2013년부터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자살의 재시도를 방지하고 자살률을 감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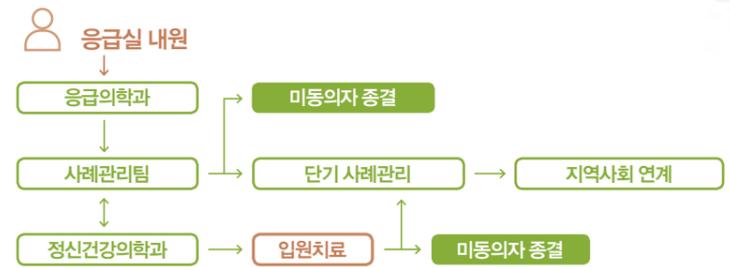
인하대병원은 2017년 3월 1일 본 사업에 선정되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구축하였고, 담당 사례관리자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인이 함께

**우리나라의 자살률**



2015년 기준 인천광역시의 자살률은 부산광역시 29.0명에 이어 27.4명으로 6개 광역시 중 2위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6).

**인하대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사례**



2017년 3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였다. 응급의학과에서는 일차적으로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처치가 진행되었고,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을 통해 환자의 자살시도에 대한 정신과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후 주치의의 의뢰를 통해 사례관리자가 개입하여 CTRS(위기분류척도)진단, 위기상황 및 사회적 지지체계 파악 등이 진행되었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사례관리자는 환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담당 주치의와 사례개입 방향을 논의하였고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본 사업에 대해 안내를 제공하고 사례관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본 사업은 환자의 동의하에 진행되며, 환자가 거절할 경우 개입이 중단된다. 따라서 사례관리자 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 환자를 접촉하는 응급의료센터 내 치료진 모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권유하고 있다.

**둘째, 의료비 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살시도로 인해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환자는 사례관리자와의 상담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 사례회의를 통해 의료비 필요성 여부를 논의한 뒤 사례관리자는 본 사업의 관리기관인 ‘중앙자살예방센터’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다. 신청한 의료비는 ‘중앙 자살예방센터’에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며, 적격 여부가 판정되면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의료비가 지급되고 1인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한다. 인하대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팀이 동시다발적이고 다학제적인 접근으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의료비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환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함께 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셋째,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였다.**

자살을 시도한 원인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환자가 회복한 뒤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재시도의 위험성이 높다.

본 환자의 경우 상담을 통해 자살시도의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환자는 신체적인 질환으로 인해 근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사회적 자원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사례관리자는 환자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환자의 상황을 대변함으로써 지원 가능한 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환자의 경우 4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매월 약 25만 원을 생계비로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 자격 신청을 통해 현재 수급권 심사 중이다. 수급권 심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원한다.**

자살은 매우 위급한 응급상황에 해당되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함으로써 전문적인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치료진은 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모든 자살시도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본 환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지속에 대해 동의 하였고, 치료적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입원치료비와 더불어 외래치료비를 지원 중이며 현재까지 원만하게 치료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인하대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환자가 퇴원 후에도 자살이라는 ‘위기상황’ 이전의 ‘안정적인 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전화 상담, 내소 상담,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있는 환자들이 인하대병원에 내원하여 ‘토닥 토닥’ 따뜻한 위로를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16년 9월 정부주도로 1차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입원전담전문의'가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다. 내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공의 특별법에 따른 전공의 근무시간의 개선과 전공의 부족 사태를 겪고 이에 따른 입원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한내과학회 주도로 만들어졌다. 2016년 9월부터 정부주도로 1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고, 2016년 11월 말 내과 3개, 외과 3개 기관에서 시작하여 현재 2017년 3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글\_ 조재화 교수 / 호흡기내과·입원학과 과장

## Department of Hospital Medicine

입원과 동시에 '입원전담전문의'가 주치의  
환자 중심의 통합진료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 입원부터 퇴원까지 '입원전담전문의'가 직접 책임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문의가 직접 환자 진료를 책임지고 시행하는 역할을 한다. 입원환자의 처음 진찰, 경과관찰, 환자와 가족 상담, 병실에서 처치와 시술, 수술 전후 환자의 관리 등을 직접하고 퇴원계획들을 수립하는 일을 한다. 미국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hospitalist)'들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사고를 감소시켜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점점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 동반·복합 질환 환자, 입원 중 통합진료 가능

인하대병원에는 올해 '입원학과'를 신설하였으며, 입원 환자 진료를 혁신한다는 미션을 갖고 있다. 환자 중심으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여 의료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반 병동의 환자를 담당하는 입원전담전문의와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를 담당하는 중환자전담전문의, 그리고 인하대병원 신속대응팀(INHART)의 의료진들로 구성하였다. 외래나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이나 집중치료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외래에서 입원을 결정하는 것은 각과 세부 전문의라 하더라도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전담전문의가 주치의가 된다. 담당 세부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입원 기간 중 그 분과와 관련된 진단 및 치료에 대해 상의하여 진행하고,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담전문의가 담당하게 된다. 다른 세부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수에게 협진을 하여 환자를 위한 통합진료를 실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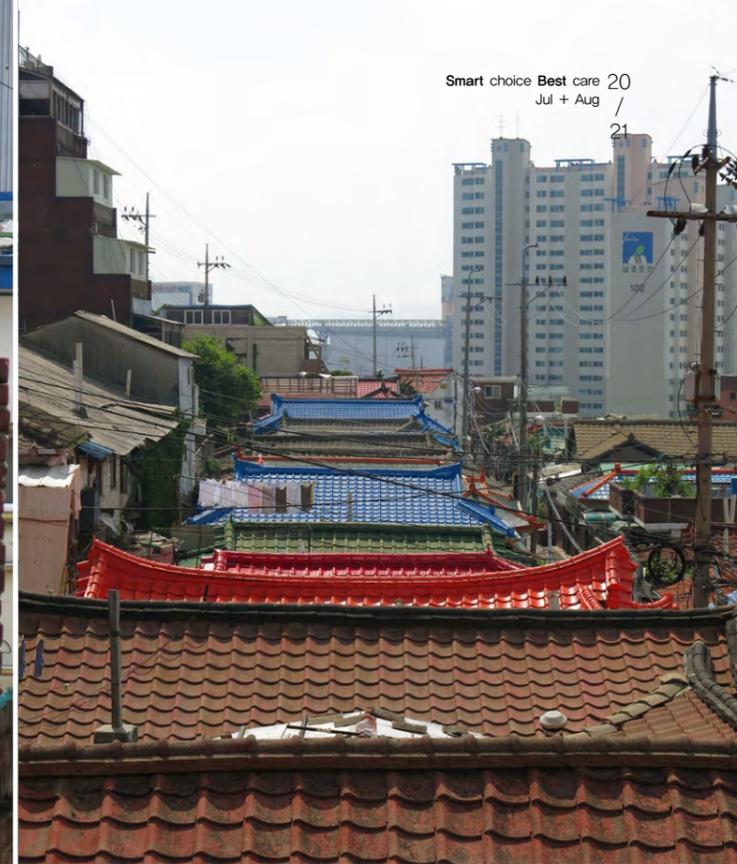
우리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입원환자의 담당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을 가진 고령의 복합질환 환자들이 입원하고 치료받는 중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입원전담전문의가 주치의가 되어 통합진료를 하면 진료의 질이 향상되며, 진료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환자 진료 협력, 교육 등 환자 관련이라면 적극적 도모

우리 인하대병원은 내과와 외과 입원전담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내과 입원전담전문의로는 이정환 교수, 경태영 교수(2017년 10월 임용 예정)가 있고, 동15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다.

외과 입원전담전문의는 박정미 교수, 장용선 교수가 수술 전후 외과 환자 관리, 항암치료 등을 서7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집중치료실 전담전문의로 김정수 교수, 이만중 교수 등이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중환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돌보고 있다. 입원학과에서 환자 진료 협력, 교육 그리고 환자안전에 대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향후 충분한 인력충원을 하여 24시간 주 7일 동안 전문의가 환자관리를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1 기상대 정문 앞 동네의 '기상대 슈퍼'
- 2 하얀 원통을 머리에 이은 듯한 모습이 특징이었던 옛 인천기상대.
- 3 1923년에 건축된 기상대 창고와 근대기상100주년 기념 동판.

# 하얀 원통 건물, 스케치북에서 사라지다

## 대포 소리로 정오를 알려주던 인천기상대

참 묘하다. 인천이나 서울이나 기상관측소가 들어앉은 자리가 둘 다 송월동이다. 송월동(松月洞)이란 한자도 같다. 서울 기상관측소는 1907년 경복궁 근처 중심지역 날씨를 측정하기 위해 세워졌다. 지금도 이곳 마당에 첫눈이 내려야 서울 첫눈으로 발표된다. 이보다 먼저 생긴 인천기상대는 우리나라 기상관측소 중 가장 큰 형님 뻘이다. 인천기상대의 주소는 정확히 말하면 전동이지만 정문이 송월동 쪽으로 나있어 심리적으로 충분히 이 동네에 속한다. 전동 쪽으로는 인일여고와 긴 담으로 굳게 막혀 있다. 북위 37.28° 동경 126.38° 응봉산 꼭대기에 등지 튼 이 기상대는 자유공원 사생(寫生)대회의 단골 스케치 포인트였다. 많은 아이들이 높게 솟은 첩탑과 하얀 원통형의 독특한 외관을 한 기상대를 크레

자유공원을 품고 있는 응봉산의 뒤편에서 격동의 바다를 바라보던 동네가 있다. 그 바다를 통해 기상관측, 전기, 비누 등 신문물의 보따리가 들어왔다. 송월동은 어머니 품과 같은 동네다. 긴 항해를 마친 뱃사람들과 수심 리를 달려 온 철마가 그곳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이제 이 동네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천진난만한 꿈을 꾸며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글·사진\_유동현 / 인천시 '굿모닝 인천' 편집장, '골목, 살아지다' 저자

파스로 도화지에 그려 넣었다. 오랫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했던 기상대는 이제 출입이 자유롭다. 인천기상대가 문을 연 지 100년이 지났다. 일제가 1905년 1월 1일 응봉산 정상에 관측장비를 갖춘 인천측우소 청사를 세웠다. 초대 소장으로 일본 중앙기상대장을 지낸 기상학의 권위자 와다 박사가 부임했다. 그만큼 인천측우소의 위상은 중요했고 막강했다. 날씨 파악은 한반도 진출의 중요한 업무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인천관측소는 국내 13개 도시에 있는 측우소는 물론 만주 지방의 관측소까지 통괄했다. 일본 기상대, 런던의 그리니치천문대와 기상정보를 주고 받을 만큼 보유 기술도 뛰어났다. '팽', '꽂앙~' 100년 전 관측소 마당에서 쏜 대포 굉음이 매일 인천시 내에 울려 퍼졌다. 대포 소리가 난 시간은 정각 12시. 점심시간을 알

리는 소리였다. 광복 전만 해도 시계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관측소에서는 매일 정오에 공포를 쏘았다. 정오에 대포를 쏜다고 해서 흔히 응봉산을 오편산(午砲山)이라고 불렀다. 시각을 알리는 명분으로 오편을 쏘았다고 하지만, 짜증스러운 스트레스의 차원을 넘어서 그 대포 소리는 식민지 민초들에게 가하는 무언의 으름장이었다. 이제 사생대회 아이들은 그 건물을 더 이상 그릴 수 없다. 그 유서 깊은 원통 모양의 건물이 몇 해 전 사라졌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건물이었다. 기상대 측은 1960년대와 80년대에 증·개축했기 때문에 문화재 가치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소리 소문도 없이 철거했다. 인천의 근대문화유산 하나가 다시 한번 손을 탄 것이다. 10월 22일 새 청사가 들어섰다. 그나마 다행이다. 옛 본관 옆에 있는 작은 빨간 벽돌집은 그대로다. 이 건물은 언뜻 봐도 100년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다. 이 건물을 문화재로 지정하지는 여론을 의식해 기상대 측은 이 창고 건물은 보존하기로 했다. 기상대를 막 나서는데 정문 옆의 '세계지진관측망 인천관측소'라는 작은 팻말에 눈길이 갔다. 이곳이 바로 한국 최초 지진 관측 시발점이다. 이 관측소는 지난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뉴스가 보도되면서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그날 이 지진계의 바늘은 백령도 앞바다의 수중 음파가 전달되면서 잠시 몹서리를 쳤다.

## 자유유치원과 인항야학

기상대 정문 앞으로 내려가면 건너편에 자유유치원이 있다. 산 끝 자락 가파른 곳에 서 있어 바다를 조망하기 좋은 곳이다. 이 때문에 자리바뀐 유난히 많았던 곳이다. 원래 이 자리는 독일 상인 파울 바우만의 주택이 있었다. 우아한 서양식 2층 석조 건축물로 러일전쟁 직후인 1906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을 두 번이나 지낸 사이토 마고토의 별장으로 사용되었다. 총독이 눈독을 들일만큼 좋은 위치였던 곳이다. 광복 이후에는 미군과 국군이 번갈아 사용하다가 인천상륙작전 때 건물의 일부가 파괴되었고 1955년에 완전히 철거되었다. 송월초등학교가 그곳에 세워졌는데 후에 건너편으로 이전하였고 그 자리에 북성초교가 다시 개교했다. 북성초교는 얼마 안 가 송월초와 통합돼 폐교된 후 그 자리에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이 들어섰다가 현재의 유치원에 자리를 내줬다. 어스름해지는 시간, 가방을 든 몇몇 사람들이 자유유치원 아랫길 계단을 서둘러 오른다. 허름한 2층 집 창문에서 간간히 새 나오는 불빛이 골목을 밝힌다. 이곳은 인항야학이다. 7, 80년대 풍속도의 하나였던 야학(夜學)이 여전히 이곳에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인항야학은 문을 연 지 55년이 되었다. 인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야학이다. 그 역사만큼이나 우여곡절이 많았다. 학



송월동 동화마을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태우고 인천역에 도착한 경인선 복선 축하 열차

교 건물을 찾아 지금까지 이사 다닌 것만 열한 차례이다. 인향야학은 1962년 도원동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당시 동장이 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시작했지만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 1966년 용현 2동 재건회관으로 쫓기다시피 옮겼다. 베니어판을 쪼개 칠판으로 삼고 절에서 불공하고 남은 양초를 모아다 불을 밝힐 만큼 열악했다. 교실도, 학습 교재도 어느 하나 변변치 못한 여건이었지만 지난 때문에 정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계속 몰려들었다. 이후 몇 번의 짐을 싣 끝에 옛 송월동공부방 자리에 다시 불을 켜다. 지난 50여 년 동안 2,000여 명의 학생과 9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 신문물의 보따리에 싸여 들어온 전기와 비누

구한말 송월동에는 독일인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적지 않게 거주했다. 산 남쪽의 번잡함을 피해 이곳에서 여유롭게 살았다. 그런 이유로 신문물이 들어와 이곳에서 발아하기도 했다. 1905년 6월 구미인, 청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 39명이 함께 출자해 인천전기를 설립하고 이듬해 4월 지금의 송월동 남경포브 아파트 자리에 발전소를 차렸다. 독일에서 가져 온 100kw 규모의 직류 화력 발전기 두 대로 시작한 사업이었다. 전기가 들어 온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다. 당시 조선일보의 전등 관련 광고를 보자. ‘자는 수뱃게 업던 암흑세

계를 백주(白晝)와 가티’ 밝힌 전등은 경이로운 존재였다. ‘깜깜한 세상에서 불빛을 모르고 살든 우리 조상을 도라볼 때에 일면 가이 업슨 생각’ 이 들 정도였다(1926년 8월 5일자). 개업 한 달 만에 1,000여 개, 2개월 후에는 1,800여 개의 등이 설치돼 인천의 밤을 환히 밝히기 시작했다. 신문물 보따리에 싸여 들어온 것 중에 비누가 있었다. 인천서 비누를 처음 만든 것은 1895년경이지만 본격적인 비누공장이 세워진 것은 1912년 일본인 ‘오다’가 송월동에 ‘애경사(愛敬社)’를 설립하면서부터다. 1954년 제주도 사람 채몽인 씨가 이 공장을 인수해 ‘애경유지공업(주)’를 창립해 종업원 50명과 함께 비누 사업을 시작했다. ‘애경’은 바로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애경 사사(社史)에 의하면 ‘미향’이란 브랜드의 비누만 한 달에 100만 개를 팔아 당시 경인국도를 달리는 차량 대부분이 애경유지 트럭이었다는 일화를 남겼다. 이것이 오늘날 애경그룹의 모태다. 앞서 언급한 채몽인 씨는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의 남편이다.

#### 일본식 주택과 오래된 한옥이 곳곳에 살아 숨쉬는 송월동

지금도 송월동에는 일본식 주택이 많이 남아있다. 특히 송월교회 밑으로 모양이 비슷한 일식 주택이 많이 눈에 띈다. 동일방직과 이천전기 사택으로 사용되었던 집들이다. 비탈에 집을 짓고 곳곳에

계단을 만들어서 골목이 아기가자기하게 이어졌다. 세월이 못 이겨 퇴락하던 이 골목이 최근 대대적으로 화장(化粧)을 넘어 분장을 했다. 골목에 들어서면 마치 테마파크 입구에 들어선 느낌이다. 가스 밸브함을 이용해 만든 ‘오즈의 마법사’의 양철 나무꾼을 비롯해 헨젤과 그레텔, 빨간 모자 등 이름만으로도 친숙한 동화 속 장면들이 벽을 걸러풀하게 수놓았다. 골목 이름도 아예 ‘송월동 동화마을’이라고 불렀다. 송월교회 내리막길 옆에는 우물이 있다. 앞에는 녹슨 펌프도 있다. 길 가던 주민에게 물으니 오래전에 폐쇄되었다는 말과 함께 골목 아래쪽에도 우물이 하나 더 있다는 정보를 준다. 아래쪽 우물은 뚜껑이 열쇠로 잠겨 있지만 얼마 전까지 사용한 흔적이 있다. 이 동네에서 60년 가까이 살아 온 오익환(88) 할아버지는 송월동의 변천사를 상세히 꿰차고 있다. 그는 천안에서 철도 관련 일을 하다 광복 직후에 인천역 근처로 전근 오게 되었다. “인천역 근처에 부두가 있었을 때는 이 동네에 배를 부리는 선주(船主)들이 많이 살았지. 저 우물들 앞에 오징어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씻었던 게 옛그제 같은데… 암튼 이 동네는 산 밑이라 그런지 물이 좋아. 아무 데를 파도 물이 나왔지.” 송월동에는 일본식 가옥들 뿐만 아니라 오래된 한옥이 많이 남아있다. 송월초등학교 밑으로 가면 인천에서는 이제 보기 드문 기와집

골목이 나온다. 1950년대 중반에 조성된 도시형 한옥촌이다. 조성된 지 반세기가 넘다보니 곳곳이 낡았지만 골목에는 기와집의 우아한 자태와 기품이 여전히 흐른다.

#### 돼지장터로 불렸던 송월시장과 소박한 인천역

만석동 쪽으로 언덕을 내려오면 경인전철 변에 닿는다. 기차길 옆에 송월시장이 있다. 1937년 2월 송월공설시장으로 개설되었는데 가축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어 흔히 ‘돼지장터’라고 불렀다. 만석동과 이어진 건널목에 육교가 생겼고 철로변에 높은 담이 쳐지면서 시장은 급격히 퇴락했다. 인천역은 송월동 동선 안에 있다. 경인선이 시작되고 끝나는 이곳을 인천사람들은 ‘하인천역’이라고 부른다. 동인천역이 한때 상인 천역이라 불린 것에 대한 댓구다. 지금의 역사(驛舍)는 1960년 9월 17일에 건립된 이후 특별히 ‘성형’하지 않은 그대로다. 덕분에 시대물 드라마나 영화의 배경으로 종종 등장한다. 허벅지 근육통이 생길 만큼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조바심 나게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일 없이 광장에서 개찰구를 거쳐 플랫폼까지 평형으로 걸어간다. 무엇보다 사람이 열차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열차가 다소곳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칸에 들어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편안한 곳. 경인선 중에 이만한 순수함과 소박함을 지닌 역사는 없다.

인천역은 초창기에는 사람보다 화물을 주로 처리했다. 월미도가 유원지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한때 앞문보다 월미도 방향으로 난 뒷문이 더 발달하기도 했다. 광장 옆 구석에 인천역이 처음 생겼을 때 심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커다란 라일락이 힘겹게 서있다. 인천역은 열차에게 엄마 품이다. 세 시간 가까이 바다를 향해 달려온 경인선 기차는 인천역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그렇게 인천역은 한 세기 넘게 사람과 열차를 품 안에 받아 주고 다시 라일락 향으로 기운을 회복시켜서 먼 길로 보냈다.

#### 그때, 이곳 송월동

송월시장 현재의 만석고가교(인도교) 옆에 1937년 2월 설립된 가축시장이다. 질퍽한 부지에 특별한 건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말을 키우던 곳이라 하여 흔히 ‘말깎(말간)’ 또는 돼지장터라 불렀다. 광복 후 만석동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해 한때는 꽤 번창했던 시장이었으나 철도 길이 담으로 막히면서 만석동과 단절돼 상권이 급속히 위축되었다.

파울 바우만 주택 독일 상인 파울 바우만의 주택으로 러일전쟁 직후인 1906년~1907년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총독을 두 번이나 자넌 사이토 마고토의 별장으로 사용되었다. 총독 사이토는 1919년 8월 13일 조선에 부임하려 온 날 당시 경성역에서 나운규 열사의 저격을 받았던 인물이다. 인천상륙작전 시 일부가 파괴되기도 했고 1955년 3월 30일 송월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 철거되었다.

# 아버지는 할아버지 한 분을 위해 술을 빚다 “그 마음 본받아 꽃과 나비, 소중하고 따뜻한 가정을 담은 감홍로 빚어요!”

조선시대 3대 명주 중 하나, 붉은빛을 띠며 단맛이 나는 증류주 감홍로, 춘향전과 별주부전에 등장할 정도로 평양의 대표적인 술이 감홍로이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故 포암(浦巖) 이경찬 선생의 차녀, 잊힐 뻔한 감홍로를 오롯이 빚고 있는 이기숙 명인, 감홍로의 깔끔한 뒷맛과 허끝에 남아있는 산미가 여전히 그리운 따뜻한 그녀를 만나보자.

에디터\_ 이정희



잊힐 뻔한 아버지의 선물  
감홍로를 되찾는 긴 시간  
故 포암(浦巖) 이경찬 선생의 장남 이기춘 명인에게 문배주를(식품명인 7호), 그리고 다음이 '감홍로' 였는데 기능을 전수하였던 차남 이기양 선생의 갑작스런 작고 후, 제도적 명시 때문에 2012년이 되어서야 이기숙 명인의 기능을 인정받았다.  
적잖은 그 시간조차 참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그녀이다. 아버지의 '한숨과 눈물'을 이해하며 교감하는 시간이었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한다. '치워도 끝이 없는 군대에서 눈 치우기'라고 말하며 감홍로 일을 함께하는 지금 내 이들의 마음일지 모르겠다고 덧붙인다.

제게 잘 맞았던 감홍로, 이근 축복  
“아버지의 술 중에서 감홍로가 잘 맞았고 제가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늘 아버지의 술 빚는 모습이 익숙했지만 내가 이어서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근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보다 바닥이 있을까? 해도 안 되는 일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꽤 길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편(이민형 / 감홍로 대표)은 아버지 말년 외로움의 말벗이고 인정받는 술 테스터였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또 이기숙 명인의 애뜻한 마음을 헤아려 '감홍로'를 지키는데 함께한다.

따뜻한 가정을 꿈꾸며 술을 빚다  
감홍로를 빚기 위해서는 고두밥을 지어서 잘 저어주어야 하는 이 과정을 기계가 대신해준다. 그래도 손수 몸을 써야 하는 과정은 꽤 많다. 감홍로 맛을 지키기 위해 비용은 더 들더라도 자체 제작한 증류기로 증류하고 약재 지초, 감초, 계피, 정향, 용안육, 생강, 진피 등 7가지 한약재를 침출시킨다.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의 숙성 시간이 걸려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감홍로이다.  
감홍로를 담은 병에는 술 이름이 없다. 찬찬히 들여다보니 꽃과 나비, 그리고 집의 문양이 들어온다. 꽃의 향기처럼, 창조를 의미하는 나비, 화분 받침으로 자리하고 있는 집은 소중한 따뜻한 가정을 의미하는데 이런 문화를 이루고 싶은 마음을 담아 명인의 손끝에선 감홍로가 빚어진다.  
그래서 또 남편과 함께 종일 일하면서 싸울 수 없는 이유는 '술맛이 사나워질까봐'라고 한다.

든든한 백만 대군, 남편과 두 자녀  
술 마시고 한 잔뭇에는 기증처벌을 했으면 좋겠고 활발해진 성교육처럼 행복하게 마시는 주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녀다.  
많이 팔리는 술보다 소중한 시간으로 마시 주기를 바라는 명인의 마음이 묻어난다. 약재 자체의 성질도 그렇지만 요런 저런 마음 하나하나와 마신 후의 추억까지 아우르는 감홍로는 분명 따뜻한 술이다.  
이해하기 힘들다며 가끔 투덜대지만, 굿은

“보통은 병에 적힌 이름으로 기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주가 담기고 꽃 한 송이 꽃아 질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술맛으로 우리 감홍로를 기억해주면 바랄 것이 없어요.”

일 마다하지 않는 아들과 술을 마시기 전, 따뜻한 녹두 물을 마시거나 참쌀떡을 곁과 팔에 문혀 그 뜨거운 국물에 떠먹는 할머니의 손맛을 복원하고 싶다는 딸이 있다.

감홍로에는 온전히 따뜻한 사랑만 담고 싶은 생전 어머니의 즐거움은 이기숙 명인의 커트 값 1만 원을 내주시는 일이었다며 어제 커트하고 온 머리를 쓸어내리는 손끝조차 그리움으로 가득하다. 또 2년 전,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어머니에게 메이크업을 곱게 해드린 것은 자신이 제일 잘한 일이라고 전한다.

어려움의 시간은 길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할아버지 한 분을 위해서 그분이 만족하는 술을 빚으셨다고 한 것처럼, 감홍로를 마시는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술맛'을 기준점으로 맞춰갈 뿐이라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녀, 그래서 이기숙 명인이 빚는 감홍로에는 온전히 따뜻한 사랑만 담긴다.



감홍로(甘紅露)가 빚어지는 파주 공장. 80년대 아버지의 마지막 감홍로가 보존되어 있다. 다양한 한약재가 들어가 몸을 따뜻하게 하며 항산화 기능도 있다고 전해진다.

# 인생은 한 번, 행복을 찾는 소비 방향의 가치! 100세까지 올로(YOLO)가 건강한 올로(YOLO)!!



‘올로’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로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자신이 느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9월 옥스퍼드 사전에 신조어로 새로 등재됐고,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트렌드코리아 2017’이 올해 국내 소비시장을 대표할 키워드로 선정되기도 한 삶의 방식이자 문화 트렌드이기도 하다. 한편에서는 기대수명이 길어진 만큼 100세 ‘올로족’이야말로 진정한 올로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혼자 사는 것은 아니다. 자기 주도적 삶보다는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며 형식적인 삶을 꼬집는 건 아닐는지... 후회 없는 건강한 나의 올로 라이프를 생각해보자.

글\_ 편집부

## 올로란?

캐나다 출신의 가수 드레이크 곡의 한 소절에서 시작된 표현으로 ‘You Only Live Once’에서 앞글자만 따서 ‘인생은 한 번 뿐이다’를 뜻하는 ‘YOLO(한 번 뿐인 인생)’가 탄생했다.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여 소비하는 태도, 남을 위해 희생

하기보다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스타일이다. 당장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생활, 자기계발에 쓰는 돈을 아끼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한 충동구매와는 구별된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비한다는 점, 예를 들면 모아둔 목돈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대신 세계 여행을 떠난다거나 하는 것 등으로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도전하고 실천한다는 점이 단순한 소유욕과는 다르다.

## 올로 - 홀로 여행족 늘다

스스로 지친 나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최근 정○○(교사, 53세) 씨는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여 국내 당일 여행을 다녀왔다. 셀카봉으로 사진도 찍고, 동행이 있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훨씬 자유로운 여행 덕분에 행복했다고 말한다. 이번엔 당일치기였지만 다음엔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혼자 여행을 하고 온 이야기를 듣던 한 친구는 간혹 혼자 온 사람을 보면 같이 어울리자고 말해야 할 거 같았다고 하자, 그건 단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이라며 절

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손사래다. 이렇듯 올로족의 소비는 단순한 즐거움보다 재생산을 위한 스스로에게 투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몇천원짜리 김밥을 먹고 1만 원짜리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은 ‘작은 사치’ 또, ‘티끌 모아 티끌, 티끌 모아 차 못 산다’라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 현실에 집중하는 소비 방향에 가치를 둔다. 자기 인생에서 각자의 방식을 찾아 행복을 느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이상 실현이 좋은 예인데 바로 ‘여행’을 꼽을 수 있다. 저가 항공의 등장,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이유도 있지만 최근 해외 여행객이 증가한 것도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 ‘경험’을 쌓는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올로 소비와 무관하지 않다.

인터파크의 여행행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3명(31.0%)은 혼자 여행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떠나는 것이 해외여행이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충족시키기 위해 떠나는 해외 여행객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인 여행객 중 여성은 52.3%, 남성은 47.7%로 여성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여름휴가도 올로! 올로!!

올로 트렌드는 국내 소비 시장을 주도하며 여름휴가를 겨냥한 소비 트렌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호텔업계는 최근 ‘호캉스(호텔+비캉스)’가 급부상하면서 1인 고객을 위한 ‘올로 패키지’로 객실 1박과 유러피언 노천 카페 치맥 세트, 영화 관람권 1매 구성상품, 일출을 감상하며 요가를 할 수 있는 ‘선라이즈 요가 패키지’, 부산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는 이들을 위한 ‘나홀로 올로 패키지’도 등장했다. 특히 15층 멤버스라운지에서 낮에는 부산 광안리 일대를 조망하며 차를 마실 수 있고 저녁에는 다양한 주류와 안주를 무제한으로 즐기면서 야경을 감상할 수도 있다.

식품업계도 올로 취향 저격하기에 나서, 취향대로 여러 가지 맛을 선택해 먹는 ‘취존(취향 존중)’ 등 소용량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혼디족(혼자 디저트 먹는 사람)’을 위해 1인용 디저트 케이크 10종과 떠먹는 케이크, 기존에는 12개입이 들어있는 박스로만 판매하던 상품을 날개와 2개 묶음으로 소포장 제품 비중을 늘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식품기업들은 ‘올로’ 단어가 들어간 상표권 선점에 나서고 있다. D그룹은 지난달 특허청에 ‘올로햄’ 상표권을 출원했다. O그룹은 지난 5월 ‘YOU ONLY LIVE ONCE’라는 상표를 일찌감치 출원한 상태로 알려졌다.

유통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작은 재미로 행복을 찾으려는 ‘올로족’에 맞춰 체험형 공간을 늘리고 있다. 올로(YOLO)족의 최대 관심사인 ‘여행’에서 착안하여 해외여행을 온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현지 숙소를 재현한 유통업체도 있다.

‘남자들의 놀이터’를 표방한 한 유통업체는 상품을 단순히 진열하는 형태를 넘어 가전, 드론, 무선 조종 자동차(RC카) 등을 직접 만져보게 꾸미는가 하면 ‘풋살구장’을 설치하기도 하고, 벽을 나무와 담쟁이덩굴로 둘러쌓은 카페 등을 들여와 마트가 아닌 호텔 라운지처럼 꾸민 곳도 있다.

## 커뮤니티에 올라온 올로 타령

장기적인 불안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상실감 때문에 현재가 있다고 외치며 오늘을 즐기려는 불편한 진실이 올로 라이프이기도 하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로 타령하는 남편 골로 보내버리고 싶다’라는 고민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말에 혼자 사라지는 남편에게 어디냐고 물으면 바람 쐬러 나왔다며 간섭하지 말라는 등등 남편의 지나친 올로 라이프에 화가 난 아내의 사연이 었다. 글쓴이는 주제 파악도 못하고 ‘올로’만 찾는 남편을 보면 앞으로 같이 살 마음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만 올로?

‘카르페 디엠(carpe diem · 현재를 잡아라)’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외치면서 더욱 유명해진 말이다. 영화에서는 현재 삶의 낭만과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하는 학생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무엇보다 확실하며 중요한 순간이라고 전하고 있다.

지금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이 순간이 인생의 전부 아니고 살아 가야 할 날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

‘You Only Live Once’ & ‘I Only Live Once’

내 인생도, 나도 한 번 뿐이다.





- 1 환자안전모범사례 우수 시상식
- 2 환자안전은 통증관리로부터(Safety rounding)
- 3 깨끗한 손위생으로부터 환자안전입니다.
- 4 통증관리 플래시몹 함께해요~~
- 5 전공의 선생님 "환자분들의 통증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 6 환자통증공감도 환자안전입니다.
- 7 아프시면 참지 말고 꼭 말씀해주세요 (외래환자 통증 Speak Up)

## “환자안전 Up ↑ 환자위해 Down ↓”

인하대병원의 환자안전을 위한 Up-Down 프로젝트의 하나로 매년 진행되는 환자안전의 날 행사가 7월 12일, [환자안전 Up ↑ 환자위해 Down ↓]을 주제로 시행되었다.

글 \_ 신정애 / 가치혁신팀 팀장

환자 안전은 단순히 일회성 목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료의 중심이 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인하대병원에서는 매년 환자 안전의 날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인하대병원에서의 환자경험’이 가장 우수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의료진은 우수한 치료를 제공하고,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하여 안심할 수 있는 안전절차와 체계를 만드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끊임없이 개선 활동에 할애하고 있다.

### 환자안전을 높이기 위해 환자의 이름 묻기

환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가장 명확한 방법의 하나로 의료진은 환자를 이전에 만난 적이 있더라도 정확한 환자확인을 위해 입원해 있는 동안 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등)와 환자의 이름을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다. 약물, 치료, 수술 또는 식사를 받기 전에 실시하는데, 이것은 의료진이 어떤 환자인지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해당 환자가 정확한 치료를 받도록 간단하고 입증된 조치로 모든 의료진이 실천하고 있다.

### 환자의 통증에 공감하고 조치하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환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통증과 고통의 정도에 대해 자주 확인을 하고 있다. 통증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0-10 통증 척도를 이용해 확인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신속한 통증 정보 제공은 치료 결정에 중요하므로, 통증에 대한 의사소통과 공감을 위해 환자에게는 통증자가 그려진 부채를, 의료진에게는 통증자를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1층 로비에서는 환자안전과 통증을 주제로 한 플래시몹 행사를 시행하여 환자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홍보하는 시간이 되었다.

###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손을 깨끗하게 하기

환자에게 해로운 박테리아와 같은 세균을 없애기 위해 모든 의료진은 진료실 출입 전후에 알코올 젤이나 비누를 사용하여 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이는 방문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간단한 행동으로 세균감염의 위험이 많이 감소하므로 손 위생 향상을 위한 체험행사도 시행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직원 특강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강을 하여 다시 한번 환자안전을 위한 직원 개개인의 수행수칙 준수를 다짐하였다. 병원에서의 사고, 과실, 부상 및 감염 사례의 수와 빈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환자안전 모범사례를 발표하였다.

### 환자안전에 헌신하는 인하대병원 Value Star 되기

환자안전에 관한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헌신하는 일 잘하는 인하대병원의 직원(Value Star)이 되기 위한 마음을 다지고, 환자안전 모범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경영진의 격려와 의지를 보여주었다.

### 리더십 현장 안전 라운딩

김영모 의료원장과 경영진은 현장점검을 통하여 환자안전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현장 안전 라운딩(Safety Rounding)을 시행하였다

### 인하대병원의 환자안전 지속유지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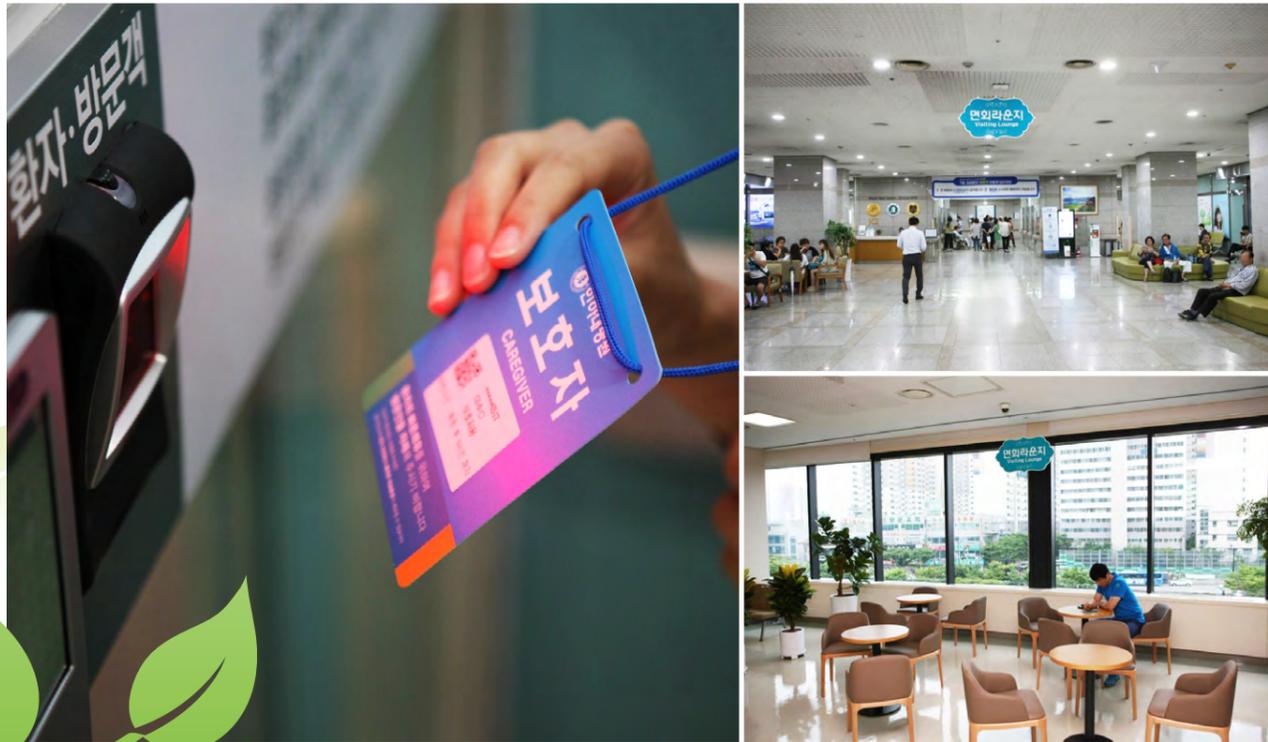
인하대병원은 그동안 환자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많은 변화를 이루었고 한결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3회 연속 JCI 인증과 2회 연속 의료기관인증 높은 점수로 획득할 수 있었다.

인하대병원에서는 우수한 치료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있다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직원은 끊임없이 헌신하고 있다.

## 병문안, 환자의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약속! 출입증 소지하고 평일 1회, 주말 2회로 제한

인하대병원은 7월 1일부터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병문안 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전체 병동에 스크린도어를 설치, 병문안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병문안은 출입증을 소지한 방문객만 할 수 있고 병문안 시간은 일반 병동 기준 평일 1회, 주말 2회로 제한되며 그 외에는 병문안이 불가능합니다.

글\_ 우승민 차장 / 홍보팀 사진\_ 손보광 / 홍보팀



병문안 문화개선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확산의 원인이었던 무분별한 병문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인하대병원은 2016년 2월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병문안 문화개선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선도병원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병문안 문화개선은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병원 직원들의 노력만으로 병문안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모든 방문객과 보호자가 환자의 건강을 위한다는 인식으로 동참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 ▶ 병실 출입 절차

### | 환자/보호자

STEP 1  
원무팀 입원 수속 창구 방문  
(입원 절차 진행)



STEP 2  
환자인식표 및  
보호자 출입증 수령



STEP 3  
병동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에  
환자 팔찌 또는 보호자 출입증을  
접촉하면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 | 방문객

STEP 1  
면회안내소(1층/지하1층)에서  
방문객 일지 작성



STEP 2  
출입증 수령



STEP 3  
병동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에 출입증을 접촉하면  
스크린도어가 열립니다.



| 면회 라운지는 지하1층 로비 및 신관 3층 외래공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병문안 종료 후 출입증은 1층/지하1층 면회 안내소 또는 안내데스크에 반납해주세요!

## Q&A

- Q.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고 병동으로 올라갔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면회안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고 올라가야 합니다.
- Q. 여러 명이 병문안을 왔을 때 출입증은 한 명만 받으면 되나요?**  
A. 병문안 인원은 1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1명씩 교대로 병문안이 진행됩니다.
- Q.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까?**  
A. 별도의 확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Q. 한번 발급받은 출입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환자, 보호자께서 발급받으신 출입증은 입원 기간 동안은 계속 유효하며, 방문객의 경우 방문 당일 허용된 면회시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Q. 정해진 면회시간에 방문할 수가 없는데 그럼 환자 면회를 못하나요?**  
A. 병동에서 환자를 만나실 수는 없으며, 환자 거동이 가능한 경우 지하1층과 신관 3층에 설치된 면회 라운지에서 환자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단, 환자의 건강상태 고려는 필요하겠지요

## 입원환자 병문안 안내

### 1 병문안 시간과 인원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구분	병문안 시간	
일반 병실	평일(1회)	18:00 ~ 20:00
	주말(2회)	10:00 ~ 12:00 18:00 ~ 20:00
집중 치료실	내과계/ 심혈관계	12:00 ~ 12:20
	외과계/ 응급전용(A·B)	19:00 ~ 19:20
		12:40 ~ 13:00
		19:40 ~ 20:00
응급의료센터	응급원무과에서 보호자 출입증 수령 후 출입 가능	
신생아 집중치료실	13:00 ~ 13:30	면회객은 부모로 제한
	19:00 ~ 19:30	

### 2 호흡기 질환 등 감염성 질환자는 병문안을 자제해 주세요!

- 면역력이 약한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호흡기질환, 급성 상 기관지 감염 질환자는 병문안을 제한합니다.
- 외부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노약자, 임신부, 미취학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 3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주세요!

- 병문안 전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호흡기 에티켓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의 안전, 건강에 영향을 주는 외부 물품(음식, 애완동물, 꽃 등)을 가지고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 어르신만  
살아계셔도  
의료봉사는 계속 되리라...

## 뜨거운 사막에 핀 봉사의 꽃

나보이에서의 3일은 의사가 되고 나서  
제일 많은 환자를 본 것으로 기억될 것 같다.  
하루 500명이 넘는 주민을 진료하여  
우리 병원의 우즈벡 의료봉사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8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이루어진 지속적인 의료봉사로,  
우즈벡 국민과 인하대병원 의료진 간에  
맺어진 깊은 신뢰와 사랑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글 김명옥 교수 / 재활의학과



### 인하대와 활발한 학문적 교류로 지명도 매우 높다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는 2010년에 처음 방문한 이래로 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 병원의 대표적인 국제의료봉사활동 중 하나이다. 올해도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송준호 공공의료사업지원단장(신장내과)의 인솔하에 교수 3명(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공의 3명(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간호사 4명, 약사 2명, 행정지원 2명 등 14명의 인원으로 봉사단이 꾸려졌다.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은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로서, 14세기 무렵 아미르티무르 통치 시절에는 중앙아시아는 물론 서남아시아 전역과 인도 일부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위세를 자랑하던 나라이다. 1991년 소련에서 분리 독립한 후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경제발전의 롤 모델로 삼을 만큼 교류가 늘어가고 있다. 특히 인하대학교는 2014년 수도 타슈켄트에 타슈켄트인하대학교(IUT)를 설립하여 학생 수가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재학 중 1년은 반드시 인하대 본교에서 수업을 진행할 만큼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하고

있어 우즈베키스탄에서 인하대의 지명도가 매우 높다.

이번 의료봉사를 떠나면서 세 가지 자신과의 약속을 했다. 하나는 '건강하게 다녀오자',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자', 마지막 하나는 '최선을 다해 진료하자'는 것이다. 봉사 참여는 일면 고생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좋은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기도 하기에 병원에 남아 대신 고생하는 동료들을 생각하면 고마움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6월 18일 설렘과 기대 속에 인천국제공항에 나갔더니 의약품, 비품 박스만 20여개에 이를 만큼 산더미같이 쌓여있어 '와! 이만큼이나 가져가는 것을 보니 봐야 할 환자가 엄청 많은가 보다' 정신이 퍼뜩 들었다. 7시간의 비행 끝에 우즈벡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다음날 첫 진료는 타슈켄트의 어린이병원이었다. 우리 병원과 협약을 맺고 있는 우즈벡 우춘재단이 어린이건강재단이어서 주로 뇌성마비나 척수수막류, 근육병 등 중증의 소아 장애아동들에 대한 진료와 상담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선진의료에 대해 익히 알고 있어,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받으면 나올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이 많았고, 특히 고관절 탈구나 관절변형에 대



해 한국을 방문하여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성껏 상담해 드렸으나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어 아쉬움도 남았다.

### 마지막 한 분의 어르신까지 '아리랑요양원'의 봉사는 계속되길

둘째 날은 더욱 뜻깊은 곳을 방문하여 봉사할 기회를 가졌다. 타슈켄트 외곽의 '아리랑요양원'인데 이곳은 일제 치하 간도 지방과 연해주(현재 블라디보스톡)로 이주시킨 한인들을 2차 세계대전 때인 1934년경 소련-일본 간 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소련 공산당의 판단 아래 중앙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강제 이주시켜 현재까지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머나먼 곳에서 아직도 한국말을 잊지 않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치료해 드리며 '이 분들이 어떻게 머나먼 이곳까지 오시게 되었을까?', '이 척박한 땅을 일구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 한곳이 찡하였다. 고려인들은 워낙 성실하여 우즈벡에서도 인정받는 민족이라고 하니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연로하신 노인들이 한분 두분씩 돌아가시면서 제사 지낼 마땅한 제사상과 제기가 없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울해는 우리 병원에서 제사상과 제기 세트를 직접 싣고 가서 전달하는 의미 있는 행사도 있었다. 마지막 한 분의 어르신이 남더라도 우리 병원의 아리랑요양원 봉사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져본다.

### 하루의 꿀 같은 휴식, 어마어마한 환자 행렬 전야제였음을...

다음 날은 나보이의 한진컴플렉스로 이동하는 길에 우즈벡의 대표 유적지인 사마르칸드를 둘러 우즈벡의 한때 찬란했던 역사의 일면을 볼 수 있었다. 아프로시아 박물관에 전시된 벽화에서 7세기 옛 한국인 사신의 모습이 담겨있는 신기한 유적도 보았고 우리나라의 첨성대에 해당하는 천문대도 구경할 기회를 가졌다. 하루의 꿀 같은 휴식은 다음 날의 어마어마한 환자 행렬에 앞선 전야제였다. 나보이 지역은 우즈벡에서 유명한 관광지나 유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하는 곳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에서 위탁 운영하는 화물기 허브공항이 있

고 대한항공에서 직접 설립한 나보이-한진컴플렉스는 숙박시설이 있어 의료봉사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었다.

### 아무런 이견 없이, 기다리는 한 분까지 진료 보재!

아침에 일어나보니 벌써 수많은 나보이 주민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얼핏 헤아려보니 수백 명에 달하는 분들이 퇴약별 속에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즈벡은 낮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길 만큼 열사의 지역으로 실내는 비교적 시원하지만 바깥에서는 오래 머물기 어려운 곳이다. 더욱이 진료소 주변에는 민가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 어디에서부터 얼마나 걸어서 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모였을까 생각하니 우리 인하대병원 봉사단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 가늠할 수 있었다.

나보이에서의 3일간은, 의사가 되고 나서 제일 많은 환자를 본 것으로 기억될 것 같다. 봐도 봐도 기다리는 환자행렬이 줄어줄 줄 몰랐다. '우리 병원에서도 이렇게 환자가 많은 의사가 되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둘째 날은 특히나 많은 환자가 운집하였다. 예정되어 있던 진료 시간은 오후 5시까지였는데, 5시가 다 되었는데도 100여 명이 넘는 환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봉사단 내에서는 이제 주민들을 돌려보내야 하나 잠깐 의논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14명 단원 모두가 '기다리는 마지막 한 분까지 다 봐 드리자'는 데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10시간이 넘는 진료에 체력은 이미 고갈되고 시원한 맥주 한잔이 머릿속에 맴돌기는 했으나, 일 년에 한번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멀리서부터 땀을 흘리고 걸어왔을 주민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은 봉사단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8시가 넘고 어둑어둑해져서야 진료를 마무리하고 모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나누어 마신 한 잔의 맥주가 더욱 시원하였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 베룬 의료보다 훨씬 맘 속 인류애와 봉사의 기쁨이 더 커

이번 의료봉사에서 무언가를 베풀었다기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다. 흘린 땀 속에 느낀 인류애와 봉사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함께 한 동료들에게도 감사한다.

# 다한증 치료제와 사용법

hyperhidrosis



- Q** 다한증 치료에 대해 알려주세요.
- A** 땀 분비와 관계된 신경을 외과적으로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있으며, 비수술적 치료로는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 A) 주사, 이온영동요법, 전신 약물치료 등이 있으나, 전신 약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용 항콜린성 약물은 부작용이 다한증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 Q** 약국에서 구입 혹은 처방 가능한 다한증 치료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A** 국내 허가된 다한증 치료제 성분에는 염화알루미늄과 글리코피롤레이트가 있습니다. 두 성분 모두 다한증이 있는 부위에 바르는 국소 외용제로 허가되어 있으며,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염화알루미늄 제제(드리클로OR, 데오콜OR, 디스웨트OR, 스웨클로OR, 유니클린OR, 노스엣 센스OR 등)**  
땀이 나는 부위에 바르는 약물로써 피부의 에크린 땀샘에 젤리 형태의 막을 형성하여 땀구멍을 막아 땀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겨드랑이, 손, 발 다한증 치료에 가장 널리 쓰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피부가 약한 경우 가렵거나 발적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글리코피롤레이트 제제(스웨트롤패드액OR)**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아세틸콜린과 땀샘의 결합을 방지하여 땀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로 안전 다한증에 사용됩니다.
- Q** 국소용 다한증 치료제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 A**
- 염화알루미늄 제제**  
저녁에 적용 부위에 적당량을 바른 후, 다음 날 아침 물로 씻어 제거합니다. 땀이 멈출 때까지는 매일 밤 1회 사용하고, 증상이 나아질 경우에는 일주일에 1~2회로 줄입니다.  
이 약은 물과 반응하여 염산이 생기므로 피부 작열감(화끈거림)을 피하기 위해 사용 전, 치료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 글리코피롤레이트 제제**  
1일 1회, 이 약 1매를 눈, 코, 입을 제외한 적용 부위에 가볍게 5회 정도 문지릅니다. 적용하기 전 적용 부위를 깨끗이 씻고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 적용 후 4시간 이내에는 씻지 말아야 합니다.  
글리코피롤레이트 제제는 아세틸콜린 기능을 억제하는 항콜린 약물이므로 동공 확대, 시야 흐림, 입 마름 등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해 주시고 항콜린제에 과민반응이 있거나 녹내장 환자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7 | 야간 032) 890-3315



청라백세요양병원 김주용 원장

## 가족처럼 온 힘을 다하는 치료 중심으로 환자·보호자·직원까지 모두가 행복한 병원

### 요양원과 다른 치료를 위한 병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요양병원은 요양원이나 다름없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 환자에게 많은 치료 처방을 하면 할수록 요양병원의 의료수가 구조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요양병원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청라백세요양병원은 병원에 맞는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을 갖추어 의사의 진료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으로 치료에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어 말기 암 환자의 고통과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복돋아 주며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지속 가능한 병원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맺고 청라 주민을 위한 일부 시설 개방과 주말농장을 무료 분양하고 있는데 이는 재단과 병원이 한마음으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은 출발이다. 또 직원 모두에게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고객 만족 교육을 통해 철저

‘청라백세요양병원’은 인천 서구 정서진 인근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청라지구 유일한 요양병원이다. 자연 친화적인 주변 환경과 평일 주말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다.

한 환자 중심의 병원 체계를 확립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병원을 지향하고 있다.

###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병원

직원들이 즐거워야 환자들도 즐겁고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만족하는 병원이 되기 위하여 직원의 복리후생 또한 소홀할 수 없다는 것이 김주용 원장의 생각이다. 병원 내 직원, 환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편의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스포츠센터, 노래방, 영화관, 배드민턴 및 족구장, 탁구대, 당구대, 음악 연주 시설 및 야외 정자와 야외 휴게실 등) 연주회 및 체육대회 개최 등 직원 사기 진작에도 힘쓰고 있다.

청라백세요양병원의 모든 직원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자세로 환자와 보호자를 만나며 이 기본 마인드가 병원문화로 정착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청라백세요양병원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봘랜드로249길 14 ☎032-524-8800

1 텃밭 2 북카페 3 고주파온열치료실 4 한방치료실



## ‘병문안 문화 개선’ 안전 프로젝트 시작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7월 1일부터 환자와 방문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병문안 문화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병문안 문화 개선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당시 감염병 확산의 원인이었던 병문안 문화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정립한 프로젝트이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6년 2월 2일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와 병문안 문화개선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선도병원으로 앞장서 왔다.

김영모 병원장은 “메르스, 사스와 같은 감염병 질환의 발생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병문안 문화 개선은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국민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스크린도어의 설치 목적은 입원 환자의 더 나은 치료환경 제공을 통한 신속한 쾌유다.”라며 “이는 병원 직원들의 노력만으로는 문화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모든 방문객은 물론 보호자가 환자와 나, 우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의 스크린도어는 대형 감염병과 같은 환자와 방문객의 이동을 통제해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 출입뿐 아니라 병동 간의 출입도 제한해 감염병 등의 원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2017년도 제2차 국제의료봉사단 우즈베키스탄 파견



인하대병원 지난 몽골 봉사활동에 이어 2017년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 2017년도 제 2차 국제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메디컬센터, 아리랑요양원, 나보이 한진컴플렉스를 방문해 보건환경이 열악한 현지인과 고려인 1세 등 하루 약 2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5일간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단장 송준호 교수(신장내과)는 우즈베키스탄 국립 내분비과학센터 초청강연

을 통해 현지 신부전 환자 치료에 대한 현황과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해 현지 의료진과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봉사단의 활동을 우즈베키스탄 국영 방송 등 현지 언론사들이 취재를 진행하며 깊은 관심을 받았다.

인하대병원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과 우즈베키스탄과의 인연은 지난 2010년 이후 8년 동안 이어져 나가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앞으로도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구촌 곳곳을 찾아가는 ‘협력형 공적 해외 의료봉사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 중증환자의 신속한 진단이 가능한 최첨단 ‘레볼루션 CT’ 도입

인하대병원이 최첨단 영상장비 ‘레볼루션 CT’를 도입해 7월 13일(목), 가동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레볼루션 CT는 심뇌혈관 질환 조기 진단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최첨단 장비로 고해상도 이미지 획득을 통한 진단 정



확성, 빠른 촬영 속도, 기존 CT보다 4배 확대된 촬영 범위가 특징이다. 0.28초의 빠른 회전 속도를 보유한 스캐너를 통해 심장과 같이 빨리 움직이는 장기에서도 정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촬영범위가 기존 CT의 4cm 수준에서 4배가량인 16cm로 확대되어 여러 차례 촬영이 필요했던 넓은 부위도 한 번에 전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이미지 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최첨단 저선량 기술인 에이스-브이(ASIR-V)를 탑재해 환자의 방사선 조사량을 최대 82%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 중증 환자의 신속한 진단을 통해 의료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조순구 과장은 “특히 심혈관 환자, 급성 뇌경색 환자, 숨을 참기 어려운 소아 환자와 같이 영상장비 촬영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더욱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7년도 ‘환자안전의 날’ 행사 개최, 환자안전 가치 공유의 장 열어



2017년 7월 12일(수), 인하대병원은 ‘2017년도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임원진의 현장방문 안전관리 점검(Safety Rounding)을 시작으로, 손 위생 동기부여를 위한 감염관리 미션수행, 개인정보보호 퀴즈대회, 외부 강사 초청 특강, 플래시몹 이벤트,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진료과정 참여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Speak Up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인하대병원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감염관리 활동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국내 의료기관 최초 의료원 전 부문 JCI3회 연속 인증을 통해 국제수준의 환자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했다.”라며 “환자 안전문화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노력하여 ‘환자가 가장 안전한 병원’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SK와이번스 야구팀과

### ‘행복드림 홈런’ 프로그램 시작

2017년 7월 18일(화), 인하대병원은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SK와이번스 야구단과 함께 ‘행복드림



홈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본 프로그램은 SK와이번스를 대표하는 내야수 박정권 선수가 올해 정규시즌 동안 기록하는 홈런 수만큼 인하대병원과 SK와이번스 구단이 함께 지역사회 저소득 소외계층 및 소아암 환우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박정권 선수는 “매년 인하대병원과 함께 하는 뜻깊은 행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물해줄 수 있어서 기쁘다. 인천을 대표하는 스포츠 구단의 야구선수로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모 병원장은 “박정권 선수와 SK와이번스의 선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인하대병원과 SK구단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천 지역사회에 행복과 감동을 선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KEB 하나은행과 외국인 환자

### 메디컬 결제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



인하대병원은 6월 28일(수), KEB 하나은행(영업지원 그룹대표 강성목)과 ‘외국인 환자를 위한 메디컬 결제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은 외국인 환자마다 개별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진료비를 입금하고 병원에 납부하는 방식을 골자로 외국인 환자 고액 현금 소지에 따른 위험 해소,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등으로

외국인 환자의 진료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초기부터 외국인환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이번 KEB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환자들이 편리하고 진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타슈켄트 인하대(IUT)와 우즈베키스탄

### 보건의료 ICT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인하대병원은 지난 7월 3일(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하대(Inha University in Tashkent (이하 IUT) 총장 사르바르 바바코자예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보건의료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분야의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에 합의했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과 우즈베키스탄은 의료봉사, 해외환자유치사업, 의료시스템 진출 사업 등을 통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IUT와 새로운 분야에 대해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분야를 잘 융합하여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와 IUT의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라고 말했다.

## 미국 NASA 관계자

### 본원 항공우주의학연구 시설 방문

미국 NASA 랭기연구소 Sang Hyuk Choi 박사 및 Norfolk대학 공과대학장인 Kyo Dong Song 교수가 인하대병원 의생명연구원(원장 이돈행) 및 인하바이오융복합연구소(소장 김규성)를 방문하여 중개임상연구 시설 및 항공우주의학연구 시설을 시찰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NASA-인하대학교-인하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이 협력하여 항공우주의학의 발전 및 우주인 장기체제에 따른 연구수요에 공동 대응하고, 향후 우주과학의 지상활용 분야의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인하대학교(총장 최순자)는 아시아 대학 최초로 미국항공우주국 랭글리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위한 Space Act Agreement(SAA)에 합의하고 인하IST-NASA 심우주탐사 국제공동연구센터(센터장 김주형)를 유치하여 항공우주의학 연구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 인하대병원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 질 향상 활동 주제 연구 재발복지공학학회 개제



인하대병원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의 2016년 질 향상(Q) 활동 '사지압박순환장치에서의 안전관리' 사례에 관한 연구 결과가 KCI 등 재학회지 중 하나인 '재발복지공학학회'에 게재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김규성 센터장, 권대규 정형외과 교수, 의용공학팀 안영재 과장 외 9명이다. 김규성 센터장은 "사지압박순환장치란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혈액순환에 가장 적합한 압박수치를 적용하여 혈액순환을 도와 수술 후 합병증(심부정맥혈전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이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기기 가동 상태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개선 활동을 기반으로 시행된 연구이다.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 성과를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17 한국연구재단(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 신규 연구과제 선정

인하대병원의 의료진 14인이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는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사업'과 '이공학개개인기초연구사업'에 선정되어 약 24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각 사업은 창의적, 가능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을 통하여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자의 역량을 제고하는 등 인하대병원의 전체적인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 조직위원회로부터 감사패 전달 받아



인하대병원은 지난 5월에 개최된 'FIFA U-20 월드컵코리아 2017' 대회의 공식지정병원으로서, 성공적 대회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6년 12월 22일(목), FIFA U-20 월드컵 대회 인천의 공식지정병원 협약을 맺고, 지난 대회 기간 동안 인천 경기 전담 의료 지원 병원으로 활동하면서 선수, 팀 관계자, FIFA 및 조직위 관계자의 안전한 경기 진행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부상 및 질환 관련 사항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대회 진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게 되었다. 김영모 병원장은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대학병원으로서 인천에서 열리는 큰 행사의 성공적 개

최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감사패를 받게 되었다.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인천의 크고 작은 행사에 기여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비인후과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과장 김규성)는 지난 7월 9일(토), 인하대병원 강당에서 '인하 이비인후과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강좌는 개원의들과 두경부 질환, 급성 호흡기질환, 어지럼증 등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김규성 교수는 "인하대병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원의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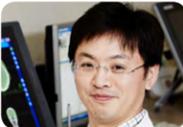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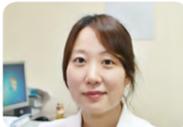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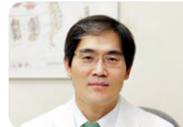
### 성형외과 황건 교수, 대한외상학회 국제학술대회 우수구연상 수상



### 이비인후과 김영호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p>2017. 6. 1</p>  <p>출연: 알레르기내과 김철우 교수 프로그램: 포포기호 내용: 천식</p>	<p>2017. 6. 6</p>  <p>출연: 비뇨기과 강동혁 교수 프로그램: 인천교통방송 '이운정의 정보세상, 인천' 내용: 요로결석</p>	<p>2017. 6. 7</p>  <p>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 프로그램: EBS 초대석 내용: 우리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p>	<p>2017. 6. 8</p>  <p>출연: 심장내과 백용수 교수 프로그램: 동아일보 내용: 심방세동 심자원 전국도자 절제술</p>	<p>2017. 6. 12</p>  <p>출연: 치과 오남식 교수 프로그램: 건강다이제스트 내용: 임플란트 부작용 없이 쓰는 법</p>	<p>2017. 6. 19</p>  <p>출연: 혈액종양내과 이현규 교수 프로그램: 국민일보 쿠키뉴스 내용: 호스피스 완화의료</p>
<p>2017. 6. 19</p>  <p>출연: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교수 프로그램: 데일리메디 내용: 한국 방사선 치료기기 개발 아쉬움</p>	<p>2017. 6. 21</p>  <p>출연: 가정의학과 조세욱 교수 프로그램: 메디칼타임즈 내용: 의사도 사람이다, 건강 과신은 금물</p>	<p>2017. 7. 5</p>  <p>출연: 안과 정지원 교수 프로그램: 경인일보 내용: 건성안의 원인 마이봄샘 기능장애</p>	<p>2017. 7. 5</p>  <p>출연: 피부과 최광성 교수 프로그램: KBS (4시 뉴스집중) 내용: 탈모 치료제</p>	<p>2017. 7. 7</p>  <p>출연: 신경외과 김은영 교수 프로그램: 인천일보 내용: 안면경련증</p>	<p>2017. 7. 7</p>  <p>출연: 피부과 변지원 교수 프로그램: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용: 여름철 발 건강법</p>

##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유방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방암 환자의 식이</li> <li>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프부종 관리</li> <li>유방암 환우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li> <li>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대상: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신청 바랍니다)</li> </ul>	8월 8일(화), 9월 13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3층 예방센터 회의실	유방·갑상선외과센터 032-890-2560~1
대장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장암의 이해</li> <li>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희망하는 분은 암통합지원센터로 사전 신청 바랍니다.</li> </ul>	홀수달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9월: 공개강좌 예정	장소 미정	암통합지원센터 032-890-3600, 3767, 3768
암 환자 음악 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암 환자를 위한 음악요법(우쿨렐레 배우기) - 희망하시는 분은 암통합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li> </ul>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미정	
이상지질혈증의 이해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상지질혈증의 정의, 합병증, 예방관리 - 김대혁 교수(심혈관센터/심장내과)</li> </ul>	09월 05일(화) 14:00~15:00	강화군보건소	
심뇌혈관질환과 재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뇨의 이해 및 혈당관리 등 - 신나라 간호사(예방관리센터)</li> </ul>	09월 06일(수) 15:00~16:00	중구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진단과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법 등 - 송선미 간호사(예방관리센터)</li> </ul>	09월 12일(화) 14:00~15:00	남구보건소	예방관리센터 032-890-2142
고혈압의 심근경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혈압과 심근경색의 관계 및 위험요인 등 - 우성일 교수(심혈관센터/심장내과)</li> </ul>	09월 13일(수) 15:00~16:00	중구보건소	
이상지질혈증의 이해 및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상지질혈증의 이해 및 위험요인 - 신나라 간호사(예방관리센터)</li> </ul>	09월 20일(수) 15:00~16:00	중구보건소	





대한민국 최초  
국제의료기관평가(JCI)  
의료원 전 부문 3회연속 인증획득



인천지역 최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재인증 획득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08:30~09:30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남문석	갑상선, 당뇨병, 뇌하수체	월, 화, 목	화	암 다학제 통합진료: 화, 수요일 오후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수	서비스진료			홍성민	갑상선, 내분비, 골다공증, 당뇨병	목, 금	월, 수		
		권계숙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김소현	갑상선, 당뇨병, 내분비, 비만	월, 수, 금	화		
	외과	신석환	위암, 소화기외과	월, 화	금	암 다학제 통합진료: 목요일 오후		외과	김세중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수, 금	월, 수*		*13:30~15:30 서비스진료
		허윤석	위암, 소화성 궤양	월, 목	월	화, 목			허민희	유방외과, 갑상선 내분비외과	월, 화, 목	목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박신영	내분비외과, 유방	월, 화, 목	화, 금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이비인후과	최정석	* 무통중편도수술, 사이버나이프, 갑상선, 두경부종양, 후두 및 음성, 침샘 및 구강질환	월, 화,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현인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월, 수, 목	(월) 수, 목, 금	해외연수(~2018, 2, 28)		
	대장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대장암, 위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08:30~09:30	유방암	외과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외과	김형길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대장질환	수, 금*	월, 수	서비스진료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권계숙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수), (금), (월)						
	방병욱	*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암 다학제 통합진료: 목요일 오후	허민희	유방외과, 갑상선 내분비외과	(월) 화, 목, 금	(화)					
종양내과	최선근	* 대장암(결장암, 직장암, 항문암), 소화기외과, 대장항문	월, 목, 금			박신영	내분비외과, 유방	(화) (금)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부인암	산부인과	이병익	종양학, 불임, 폐경기	수, 목, 금	월				
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진우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화, 수, 목			목(▲)	▲간암클리닉	송은섭	부인과, 종양	월, 수	수, 금	암 다학제 통합진료: 월 오후	
외과	진영주	* 간암, 만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지방간	월	화, 수, 금				종양내과	황성욱	* 종양학, 복강경	월, 화	화, 목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암 다학제 통합진료: 금요일 오후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월, 금	수, 목				
종양내과	신우영	해외연수(2017, 3.1~2018, 2.28)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월, 금	수,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비뇨기암	비뇨기과	박원희	종양, 전립선질환, 요실금	화, 목		암 다학제 통합진료: 목요일 오후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윤상민	종양, 결석, 신이식	월	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이택	전립선, 종양, 결석	금	화, 목			
체·담도 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든행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암 다학제 통합진료: 금요일 오후	
		정 석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췌장·담도질환, 담석질환, 췌장염	월, 금	화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외과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신우영	해외연수(2017, 3.1~2018, 2.28)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종양내과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두경부암	이비인후과	최정석	* 두경부종양, 무통중편도수술, 사이버나이프, 갑상선 후두 및 음성, 침샘 및 구강질환	월	화, 목	암 다학제 통합진료: 목요일 오후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종양내과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월, 금		수,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폐암	호흡기내과	이홍렬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금		중양스트레스 클리닉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목) (화)	*13:30~15:30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진료			
		곽승민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수			임파부종 클리닉	재활의학과	김명옥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목증, 의지보조기	목		월	
		류정선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화, 목	월			피부암	피부과	최광성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조갑질환, 탈모	월, 화, 금	목	
남해성	폐종양,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수, 금		피부암	피부과	신정현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색소질환, 피부미용	수, 금	월(3,5주), 화			
김정수	폐종양,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금			피부암	피부과	변지원		피부암(악성 종양), 피부양성종양, 피부미용외과, 피부노화, 흉터	목	금			
흉부외과	전상훈	폐종양				화	흉부외과	흉부외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김정택	폐질환, 심장, 혈관, 정맥류	월,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윤용한	폐암, 식도암	목	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종양내과	김영삼	* 폐암, 식도암, 흉선암	(수) (수)	수, (금) (수)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월, 금	수,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흉부 관련암	흉부외과	김정택	흉선암	월, 금		뇌종양	신경외과	김은영	뇌종양, 뇌신경외과, 안면경련, 3차신경통	월(▲), 금	수	▲뇌종양, 안면경련, 삼차신경클리닉 *사이버나이프센터		
		윤용한	폐암, 식도암	목	월, 목			뇌종양	신경외과	박현선	뇌종양(사이버나이프), 뇌암, 전이성종양, 뇌동맥류, 안면경련, 경동맥질환,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 (수) 목	
		김영삼	* 폐암, 식도암, 흉선암	(수) (수)	수, (금) (수)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월, 금	수,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척추종양	신경외과	윤승환	* 척추종양(사이버나이프), 척추, 척추 디스크질환	화, 목	화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척추종양	신경외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혈액암	혈액내과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월, 금	수, 목	연부조직 및 골육종			정형외과	강준수	골종양, 인공관절질환, 고관절슬관절, 관절염	월, 수	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연부조직 및 골육종	정형외과		이동주	* 종양, 상지, 수부, 관절염	월, 목,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권대규	* 종양, 소아정형, 뇌성마비, 외상	화	월, 목	
소아암	소아청소년과 방사선종양학과	김순기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화	종양내과			종양내과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월, 금	수,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 인하대병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 남청라 IC → 인하대병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 환자가 가장 안전한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 국제의료기관(JCI)인증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 지역사회 건강 지키는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외래전문질환센터

병문안 시간·횟수 기억하고

# 환자와 나의 건강을 위해 자제해요!

## 전 병동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였습니다



병문안 시간 준수



병문안은 조용히



음식물, 꽃 등 반입 금지



단체 병문안 금지



거동 가능 시  
B1 면회라운지 이용



병문안 전후  
손씻기

## 출입증 소지자만 병문안이 가능합니다



출입증 수령

1층, 지하1층 면회 안내소에서 방문객일지 작성, 출입증 수령



입실

병동 스크린도어에 출입카드를 접촉, 입실 후 병문안



출입증 반납

출입증은 병문안 종료 후 1층, 지하1층 면회 안내소 또는 안내데스크에 반납

## 병문안 가능 시간, 횟수가 바뀌었습니다

구 분		면회가능시간	비 고
일반병실	평일 (1회)	18:00 ~ 20:00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 수, 토, 일, 공휴일 10:00 ~ 20:00 (직계가족 3인까지만 가능)
	주말 (2회)	10:00 ~ 12:00	
집중 치료실		내과계 / 심혈관계	12:00 ~ 12:20
	19:00 ~ 19:20		
	외과계 / 응급전용 (A·B)	12:40 ~ 13:00	
		19:40 ~ 20:00	
응급의료센터		응급원무과에서 보호자 출입증 수령 후 진료구역 출입 가능 (단, 소생실은 출입 불가)	
신생아 집중치료실	13:00 ~ 13:30		면회객은 부모로 제한
	19:00 ~ 19:30		

- 정해진 면회시간 외에는 출입증을 패용한 보호자 1명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 면회인원이 많은 경우, 거동이 가능한 환자는 병실 밖 면회공간(B1)에서 만나시거나, 한 명씩 교대로 병문안을 해 주십시오.